

'5·18 대국민공동선언' 이후 깊어지는 갈등의 골

지역 184개 단체 '대책위' 출범
"새로운 오월 왜곡...책임 묻겠다"
부상자회·공로자회 반박 입장문
"처벌보다는 포용의 정신" 강조



지난 19일 5·18공법단체 2곳과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특전사회)가 개최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공동선언식)'과 관련해 시민사회가 선언 철회, 동우회 제명 등을 요구하고 나서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84개 지역단체가 연대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 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공동선언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왜곡의 서막이며, 오월 진상규명과 화해의 가면을 쓰고 자행한 폭거이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오월을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1일 대책위를 꾸리며 "행사를 추진한 5·18 단체 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공동선언 철회를 촉구하고, 다가오는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등에서 배제시키자는 논의도 이뤄졌다.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전대민동)는 경영대 81학번인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광주지역 18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 대대책위원회가 23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대국민 선언식' 폐기와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는 제명 운동도 펼치고 있다. 전대민동은 "5·18정신을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는 전대민동 회원들과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반성과 사죄도 없는 특전사회와 함께 국립 5·18주요지를 기습 참배하고 공동선언식을 강행했다"며 "이는 전대민동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두 단체에 공동선언 폐기와 사과 등을 요구하고 다가오는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등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같은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는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규명을 위한 5·18 공법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역사회가 두 5·18공법단체를 향한 비판을 멈추지 않자 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재차 설명하며 정면 반박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이날 두 단체는 "43년간 진척이 없었던 광주문제 해결 5대 원칙(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배상·정신계승사업)을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왼쪽)과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이 23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대국민 공동선언식과 5·18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나건호 기자

공법단체로서 직접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라며 "비난하는 시민사회에게 5·18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이 해왔지는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5·18단체 대표들은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계엄군 면죄부 논란, 정치적 개입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계엄군 당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며 "특전사회 측에 가해자라는 프레임은 계속 씌운다면 이들은 비난과 처벌이 두려

워 절대 증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회장은 2024 총선거 출마를 위한 홍보나 물음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답했다.

정성국 5·18공로자회장은 "이제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동안 5·18희생자 60여분이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돌아가셨으며, 매년 80여명 이상이 병마와 싸우다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다"며 "진상규명이 저절로 이뤄질 거라고 믿었던 꿈에서 깨어나올 때"라고 호소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교육청, 광산교육현안 해법 모색

실무자·지방의원 TF협의회
과밀학급 해소·고교 신설 등

광주시교육청이 23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광산교육진흥 TF'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산교육진흥 TF는 자치구와 협력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과 광산교육 진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교육청 실무자들

과 광주시의원, 광산구의원, 광산구청, 마을활동가, 교원단체 등 내외부 위원 24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광산교육지원청 복원 △광산구 과밀학급 해소 및 고등학교 신설 △다가치센터(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 △지역 내 통합 돌봄 환경 연계 방안 △은마마을 이음학교 활성화 방안 등 광산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광산구청 관계자는 "광산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인사들이 모여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교육청과 꾸준히 소통해 지역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광산교육진흥 TF 단장 최영순 정책국장은 "과밀학급, 고등학교 신설 등 광산지역의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들이 많다"며 "시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광산지역의 교육 효과를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양가람 기자

"일교차 조심"... 주말 '반짝 추위' 온다

대부분 지역 영하권 "체감온도 ↓"

다가오는 주말 일시적으로 '반짝 추위'가 찾아와 몸시 춥겠다. 떨어진 기온은 점차 올라 다음주 평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

23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 찬공기의 남하로 24일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

이날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 등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다. 주말의 시작인 25일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이상 떨어져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날씨를 보이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24일 아침최저기온은 0~5도·낮최고기온은 8~14도가 되겠고, 25일 아침최저기온은 -6~0도·낮최고기온은 3~9도 분포를 보이겠다. 추위는 26일 오후부터 차차 풀려 월요일인 27일부터는 평년 수준(최저기온 -3~2도·최고기온 9~12도)을 회복하겠다. 그러나 이 기간 밤·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등 낮과 밤의 기온차가 몹시 크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현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